

[34 ~ 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년 초까지 아버지는 시내 공립 중학교의 서무과장이었다. 그런데 작년의 학기말을 끝으로 물러나오고 말았다. 그 점은 순전히 엄마 탓이었다. 엄마는 아버지 학교의 공금을 빼내 썼던 것이다. 물론 아버지를 통해서였다. 그러나 아버지가 처음부터 엄마의 농간에 떨어진 것은 아니었다. 공금을 빼내어 사용(私用)으로 쓰다니. 평생원인 아버지는 슛제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되었다. 비단 그 문제만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마디로 아버지는 소심하고 웅졸했다. 말이 없고 겁이 많았다. 이를 아버지는 전쟁 탓으로 돌렸다. 언젠가 아버지는, 고향을 잃을 때부터 가슴에 큰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 구멍은 통일이 되지 않는 한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다고 자탄했다. 그러나 고향을 잃고 살기는 엄마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유는 타당치가 못했다. ㉠ 아버지는 저 유명한 금강산을 끼고 있는 강원도 통천군 두백리가 고향이었다. 들은 바로는 그곳에 배 열 척과 큰 어장까지 가진 재력 있는 수산업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해방 전에는 일본서 전문학교까지 다녔다. 해방 후로는 서울서 대학에 적을 두었다. 전쟁이 나던 해 유월, 약혼을 하기 위해 고향으로 올라간 것이 그만 발이 묶여 버렸다. 그해 칠월 아버지는 고향서 징집을 당해 인민군 소위로 참전했다. 지난 봄, 어느 날 아버지는 나도 끼인 자리에서 형의 질문에 대답했다.

“그러나 난 공산주의가 원래 새, 생리에 맞지 않았어. 객관적으로 어느 주의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 그들은 매사에 너무 과격했거든. 마치 사나운 맹수가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을 집단으로 기, 길들이려 덤벼 들었어. 그들은 인간을 생각하는 동물로 버려 두지 않았다니깐. 혁명, 투쟁, 반동, 처단 아, 단어만 드, 들어도 얼마나 끔찍하니. 사람이란 다 개성이 다름으로 해서 가, 각자의 꿈과 소망이 다르듯, 그런 자유와 창의력을 나는 존중하지. 또 너희들이 알다시피 인간이 생산과 노동 이외 사색도 피, 필요…….”

내가 아버지의 말을 꺾었다.

“아버진 역시 사색파시다, 이 말이지요. 너무 사색이 깊으셔서 결단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 오히려 소나 말처럼 잘 길들여진, 심지어 엄마에게까지 꿈쩍 못 하는 노예…….”

이제 형이 내 말을 꺾었다. “아니야. 아버지는 정말 전쟁의 희생자야. 통일을 못 이루는 이 분단의 현실이 아버지의 모든 희망을 빼앗아 갔어. 요컨대 아버지 삶의 근간을 끊어 버린 거야.”

“형, 잠깐만” 하고 내가 말했다. “교과서에서도 노래삼아 나오는 통일, 통일이란 말은 귀에 못이 박일 정도야. 그런데 뭐야.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다시피 지금 이 상태에서 저쪽 놈들과 무슨 대화가 통하겠어. 선생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이 지구상에 공존하는 한 무력의 길 이외는 통일이 힘들다고 말했어. 나도 동감이야.”

“힘들기는 히, 힘들지. 그러나 누가 지금 토, 통일의 길을 포기하고 있어? 남북 오천만이 넘는 인구 중 통일을 막고 있거나 포기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아버지는 머리를 쭈뼛쭈뼛 흔들며 말했다.

[A] “포기가 아니라 체념이지요. 아버지도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통일을 위해 누가 전쟁을 원해요? 오천만이 넘는 인구 중 몇 할이 전쟁을 원하고 있겠어요? 모르긴 하지만 전쟁은 모든 것을 망쳐 버려요. 차라리 전쟁을 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영구적인 분단이 더 좋아요. 우선 내가 살고 사회가 안정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말했다.

“너희 세대는 왜 통일이 중요한지 몰라.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한 건 순전히 교육 탓이야.” 형이 강한 어투로 내 말을 반박했다.

“교육 탓만은 아니야. 이 물질 위주의 기계주의 사회가 저 저, 젊은 애들을 다른 쪽으로 몰아가고 있어. 도덕적 가치 판단의 기준을 잃게 하는 거야.” 교육계에 몸을 담고 있었다고 아버지가 말을 들려냈다.

“저는 통일이 절실하다고 외치는 아버지나 형이 되기보단 차라리 통일을 모르는 쪽이 좋아요. 그리고 두 분을 절대로 닮지 않겠어요.” 내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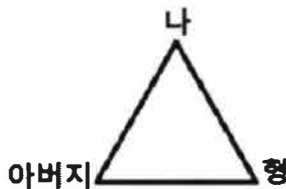
“누가 뭐래도 인간은 저, 정직이 중요해. 네 생각은 정직하지 못해.” 아버지의 말이었다.

[B] 아버지의 그 말에는 잘못이 없었다. 아버지는 늘 정직과 청렴결백을 생활신조로 삼았다. 그래서 학교에서 빼낸 공금을 보름 안으로 메워 놓겠다는 엄마의 허튼 약속을 절대 믿지 않았다. 그러자 엄마는 파산, 집단 자살, 그것도 아니라면 나 혼자 감옥에 가거든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극단적인 위협조차 사양치 않았다. 그렇게 협박과 울음을 섞어 아버지를 설득시킨 것이다. 그 결과 겨우 오백만 원의 돈을 돌려 낼 수 있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인사불성으로 술에 취해 돌아왔다. "이건 나, 날강도다. 이제 나도 책임질 수 없는 일이다. 끝장이다." 아버지는 우리의 방으로 건너와 형과 나를 잡고 투정했다. 엄마는 그 돈으로 깨어지려는 계를 겨우 수습한 모양이었다. 아버지와 약속한 보름이 지났다. 그러나 엄마는 그 돈을 메워 내지 못했다. 아버지는 안절부절못했다. 엄마도 안달이었다. 이제 아버지가 매일 자살 타령을 읊조렸다. 부정보다는 오히려 죽음을 택하는 게 낫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다. 그로써 아버지의 스물네 해 공직 생활은 불명예로 끝났다. 퇴직금을 받았으나 그 돈으로 구멍을 막기에는 모자랐다. 나머지 돈은 엄마가 어떻게 융통한 모양이었다. 학교에서 송별회를 마치고 오던 날, 아버지는 우리들 앞에서 오랜만에 울었다. 그러나 끝내 엄마를 원망하지는 않았다. "암탉이 울면 지, 집안이 망한다더니 끝내 그 꼴을 보, 보고 말았구나." 한숨 끝에 이 말을 중얼거렸을 뿐이었다. 좋게 말해 아버지는 제상에 오른 선한 양이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아버지는 집 안에 들어앉고 말았다. 매달 일만천 원씩 나오는 삼급 상이용사 연금이 이제 아버지의 유일한 벌이었다. 그러나 역시 엄마는 수완가였다. 엄마는 우리 식구를 거리에 나앉게 하지 않았다. 물론 끼니를 거르게 만들지도 않았다. 엄마의 능력으로 우리 식구는 그런대로 옛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오직 경제권이 전폭 엄마에게로 옮겨 간 점이 달랐다. ㉠ 아니, 전에도 경제권은 엄마가 쥐고 있었다.

- 김원일, '도요새에 관한 명상' -

34. <보기>의 ㉠를 설명하기 위한 단서를 [A]에서 찾았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윗글에서 [A]는 현실 문제와 관련하여 인물들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나'는 대화에 참여하는 인물 중의 하나이면서 동시에 서술자이기도 하다. 이는 현실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 하나의 시각을 다른 시각으로 조명하도록 함으로써 독자의 비판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작가의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영구적인 분단'이 더 좋다는 '나'의 생각은, '형'에 의해 잘못된 '교육'의 결과로 진단된다.
- ②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일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아버지'의 생각은, '나'에 의해 '냉정'하지 못한 생각으로 치부된다.
- ③ '분단'이 아버지의 '삶의 근간'을 빼앗아갔다는 '형'의 생각은, '나'에 의해 '무력의 길'로라도 통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 ④ '젊은 애들'이 '도덕적 가치 판단의 기준'을 잃었다는 '아버지'의 생각은, '나'에 의해 '교육계에 몸을 담고 있었다고 '둘러대'는 말로 폄하된다.
- ⑤ '우선 내가 살고 사회가 안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나'의 생각은, '아버지'에 의해 '물질 위주의 기계주의'로 인한 도덕성의 상실로 비판된다.

35. 밑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아버지’는 청렴결백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왔다.
- ② ‘아버지’는 인간의 개성을 억압하는 이념에 대해 비판적이다.
- ③ ‘엄마’는 ‘아버지’의 퇴직금만으로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갔다.
- ④ ‘아버지’는 학교 공금을 빼내 쓴 일로 불명예스럽게 퇴직했다.
- ⑤ ‘아버지’와 ‘엄마’는 고향을 잃고 살아간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36.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인물의 심리 변화를 서술하고 있다.
- ③ 인물의 처지와 가치관을 분석하고 있다.
- ④ 인물의 행동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⑤ 인물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7. <보기>는 [B]를 시나리오로 각색하는 공동 과제를 수행한 결과이다. 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S# 91 안방

아버지 : 누가 뭐래도 인간은 저, 정직이 중요해. 당신 생각은 정, 정직하지 못해.

엄마 : (애원조로) 아 내가 뭐했는데. 보름 안으로 꼭 채워준다고 했잖아. 이번만 좀 어떻게 해줘, 응?

아버지 : 그게 중, 중요한 게 아니야. 애, 애초에 공금을 빼낸다는 생각이 자, 잘못이라니까.

엄마 : (목소리를 높이며 빠르게) 그 돈이 없으면 우린 파산이야. 내가 벌어오는 돈이 없으면 우리 네 식구 모두 죽어야 한다고. 아님 내가 감옥살이 하는 동안 혼자서 고고하게 잘 먹고 잘 살든가!

아버지 :(묵묵부답, 집을 나선다.)

S# 92 며칠 후, 안방

아버지, 두툼한 돈봉투를 엄마에게 건넨다. 화색이 도는 엄마의 얼굴과 침울한 아버지의 표정 교차. 화면을 분할하여 각각의 얼굴 C. U.*

S# 93 어느 날 밤, 형제의 방

아버지의 취한 모습. 인사불성이 되어 ‘끝장이다’를 반복하며 형제에게 술주정하는 아버지. 말리러 온 엄마에게도 같은 말을 반복하며 주정을 한다.

S# 94 보름 후, 안방

아버지 : (안절부절못하며) 도, 돈을 채워주겠다는 날인데.....어떻게 된 건가?

엄마 : (되려 화를 내며) 내가 안 주고 싶어 안 주는 거냐고. 갓다 줄 때까지 잠자코 기다리라니깐!

아버지 : (잠시 사이를 두고, 그럴 줄 알았다는 말투로) 그냥 내, 내가 죽어야지. 공금에 손을 대서 나, 낫을 불히게 되느니 주, 죽는 게 낫겠어.

*C.U. : 시나리오 용어의 하나로, 어떤 한 부분을 특별히 크게 확대하여 찍는 것을 말함. ‘Close Up’의 약어.

- ① S# 91: '정직'을 생활신조로 삼는 '아버지'의 성격을 고려해서, 원작에서 '아버지'가 다른 인물에게 했던 말을 '엄마'에게도 하는 걸로 했군.
- ② S# 91: '엄마'가 '협박과 울음'으로 '아버지'를 설득하는 부분을, 원작과 달리 대화 장면으로 구성해서 '아버지'와 '엄마'의 갈등을 구체화하고 있군.
- ③ S# 92: '오백만 원의 돈을 돌려 낼 수 있었다.'라는 원작의 구절에서 '아버지'와 '엄마'의 심정을 추리하여, 두 인물의 심정 대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했군.
- ④ S# 93: '아버지'가 '형과 나'를 붙잡고 투정을 하는 원작과는 달리, '엄마'까지 등장시켜 '아버지'가 가족 모두에게 가졌던 불만을 살려 내고 있군.
- ⑤ S# 94: '약속한 보름'이 지난 후 '아버지'가 '매일' 자살 타령을 읊조렸다는 부분을, 원작과 달리 하나의 시공간을 설정하여 '아버지'와 '엄마'의 갈등을 집약적으로 보여 주고 있군.

38. 밑글의 단어를 활용하여, '아버지'를 주어로 ㉠을 달리 표현해 보았다.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니,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만큼은 '공생원'으로 살지 않았다.
- ② 아니, 경제권 행사에서 아버지는 늘 '껍데기'에 불과했을 뿐이다.
- ③ 아니,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날강도'가 되는 일만은 극히 꺼렸다.
- ④ 아니, 경제권 행사에서 아버지는 항상 '희생자'의 역할을 맡아 왔다.
- ⑤ 아니, 아버지는 언제나 경제적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32.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과 김종길의 「고고」는 대상이 지닌 특정 속성을 통해 화자가 경험한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모란이 피기까지는」에서는 봄이라는 계절에 소멸을 앞둔 대상을 통해, 「고고」에서는 겨울날 대상의 고고함이 드러나는 순간을 통해 대상의 아름다움이 경험되고 있다. 한편, 전자는 대상 자체보다는 대상에서 촉발된 주관적 정서의 표현에, 후자는 정서의 직접적 표현보다는 대상 자체의 묘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 ① (가)에서는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주체를 직접 노출하여 정서를 표현하고 있군.
- ② (가)에서는 한정된 시간 동안 존속하는 속성이 대상의 아름다움을 강화하고 있군.
- ③ (나)에서는 대상의 높이가 고고한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유일한 조건이군.
- ④ (나)는 대상의 고고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순간과 그렇지 않은 때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군.
- ⑤ (가)와 (나)는 각각 특정한 계절적 배경을 통해 대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군.

33. ㉠, ㉡과 관련지어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설움’은 ㉠을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인을 나타낸다.
- ② (가)의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는 ㉠의 경험이 화자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을 나타낸다.
- ③ (가)의 ‘찬란한 슬픔’은 ㉠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강렬한 정서를 나타낸다.
- ④ (나)의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은 ㉡을 경험할 수 있는 특정 시간을 나타낸다.
- ⑤ (나)의 ‘가볍게 눈을 쓰는’은 ㉡을 경험하기 위한 대상의 요건을 나타낸다.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죽음을 거부하면서도 삶답지 못한 생존의 늪을 허우적거릴 때, 이 도시의 생활환경이 왜 자연을 파손시키느냐의 또 다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나는 동진강 하구의 삼각주 개펄에서 새 떼를 만난 것이다. 실의의 낙향 생활로 술만 죽여 내던 내 낡은 생활 안으로 나그네새의 울음소리가 화톳불처럼 살아나기 시작했다. 새가 내 머릿속으로 자유자재 날아다녔다. ㉠ 수백 마리로 떼를 이루어 의식의 공간을 무한대로 휘저었다. 새 중에서도 동진강 하구에서 자취를 감춘 도요새였다. 나는 도요새를 찾아 헤매었다. 그중 중부리도요를 발견하기 위해 휴일에는 정배형과 함께, 그 외의 날은 나 혼자서 동남만 일대의 습지와 못과 개펄을 싸돌았다. 그러나 봄은 짧았고 곧 초여름으로 접어들었다. 그때는 이미 물떼새목의 도요새과에 포함된 그 무리는 우리나라 남단부를 거쳐 휴전선 하늘을 질러 북상한 뒤였다. ㉡ 다시 도요새 무리가 도래할 시절을 만해의 임처럼 기다렸다. 그래서 시베리아 알래스카 캐나다의 툰드라에서 편도 일만 킬로미터를 날아 남으로 남으로 내려오는 그 작은 새 떼의 길고 긴 여정에 밤마다 동참했던 것이다. 나의 일상이 너무 권태스러울 정도로 자유스러우면서, ㉢ 전혀 자유스럽지 못한 내 사고의 굳게 닫힌 문을 도요새가 그 날카로운 부리로 쪼며 밀려들었다. 그리고 떠남의 자유와 고통에 대해 여러 말을 재잘거렸다.

— 우리는 여름에 그 한대의 추운 지방에서 번식하여 가을이면 지구의 반을 가로지르는 여행길에 오른다. 우리는 떠나야 할 때를 안다. 얇은 햇살 아래 파르스름하게 살아 있던 이끼류와 작은 떨기나무가 잿빛으로 시들고 긴 밤이 저 북빙의 찬바람을 몰아올 때쯤이면 우리는 여정의 준비를 차린다. 여름 동안 부쩍 큰 새끼들도 날개를 손질하며 출발의 한때를 기다린다. 우리의 여행은 자유를 찾기 위한 고통의 길고 긴 도정이다. 처음 떠날 때, 우리는 무리를 이룬다. 그러나 창공을 가로질러 쉬지 않고 날 때는 다만 혼자 날 뿐이다. 마라톤 선수가 사십이 점 일구오 킬로를 완주할 때는 오직 자기 자신의 극기와의 싸움이라고 말했듯, 작은 심장으로 숨 가빠 하며 열심히 열심히 혼자 날아간다. 그렇다고 방향이나 길을 잃는 법은 없다. 혼자 날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각각 떨어진 개체의 몸이지만 나는 속도가 일정하고 행로가 분명하므로 우리는 낙오되거나 결코 헤어지지 않는다. 오백만 년 전 신생대부터 우리 조상들은 그런 고통의 긴 여행을 터득해 왔다.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바다와 하늘이 맞물려 있는 무공 천지에 길을 열어 봄 가을 두 차례를 대이동으로 장식해 온 것이다. 오직 생활환경에 적응키 위해서라는 한마디로 치부해 버린다면 인간도 거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오히려 인간은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 사악하고 간사하고 탐욕하고 음란하고 권력욕에 차 있어, 자연의 환경을 파괴하고 끝내 너희들 스스로까지 파멸시키기 위해 기계와 조직의 노예가 되고 있지 않은가…….

㉔ 나는 여름 내내 도요새의 이런 재잘거림을 꿈을 통해, 또는 환청으로 들어 왔다. 가을이 왔다. 그러나 이제 동진강 하류의 삼각주에서 중부리도요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아니, 중부리도요보다 몸집이 좀 큰 마도요, 등이 불그스름한 민물도요도 볼 수가 없었다. 동진강은 이미 공장 지대에서 흘러내린 폐수로 수질이 크게 오염되고 말았다. 그래서 그 많은 철새나 나그네새 중에 이제는 공해에 비교적 강한 몇 종류의 철새와 나그네새만이 도래할 뿐이다. 바다쇠오리 청둥오리 등의 오리 무리와, 흰목물떼새 꼬마물떼새 등의 물떼새 무리가 그것이다.

나는 열 개의 미터글라스가 꽂힌 시험관꽃이를 들고 동진강의 지류로 수질 오염도가 아주 높은 석교천 독 위를 걷고 있었다.

(중략)

나는 시험관꽃이를 들고 자갈밭으로 되돌아 걷기 시작했다. 이제 석교천은 살아 있는 물이라 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석교천 물은 이미 죽어 버렸다. 아니, 악마의 혼으로 살아 있다. 이 폐유가 결국 동진강으로 흘러들어 가지 않는가. 그렇다면 강폭이 팔십 미터에 가까운 동진강은 몰라도 이 석교천에는 분명 인체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만큼의 크롬산이나 수은을 함량하고 있을 것이다. 또 석교천 주민 중 십 년이나 이십 년 뒤 육가크롬화로 앓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자갈밭에 앉아 양말을 신었다. “두고 보라. 내가 기필코 석교천은 물론 동진강까지 예전의 자연수 상태로 만들고 말 테니.” 누가 들으란 듯 내가 말했다. ㉕ 나 자신도 수천 번을 반복하여 이미 자기 최면에 걸린 말이였다. 누가 이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헛된 집념이라고 나를 비웃을지도 몰랐다. 아니 미쳤다고 손가락질할 것이다. 그러나 지구의 절반을 한 해에 두 번씩이나 건너다니는 그 작은 [도요새]의 고통보다는 그 일이 내게 결코 어렵게 생각되지 않았다.

- 김원일, 「도요새에 관한 명상」 -

34.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리숙한 인물을 서술자로 내세워 진술의 해학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② 주변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주인공의 행동과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진술하여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전달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 ⑤ 작중 인물이 아닌 서술자의 전지적 시점을 통해 갈등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35. ㉑~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인물의 의식이 대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 ② ㉒: 인물이 대상과의 만남을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다.
- ③ ㉓: 인물의 의식이 대상에 의해 각성되고 있다.
- ④ ㉔: 인물이 대상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 ⑤ ㉕: 인물의 의지가 확고해진 상태에 이르렀다.

36.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요새들 간의 논쟁적 상황을 설정하여 도요새의 지혜로움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도요새의 말이라는 우화적 장치를 통해 인간 세계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도요새의 이동에 따른 공간 변화를 통해 도요새 무리의 갈등 해소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도요새의 비행경로에 관한 관찰 결과를 제시하여 인간 문명의 발전 과정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도요새의 습성과 인간의 특성을 비교하여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37. 윗글의 [도요새]와 <보기>의 [매화]에 대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어리고 성긴 [매화] 너를 믿지 않았더니
 눈 기약(期約) 능(能)히 지켜 두세 송이 피었구나
 축(燭) 잡고 가까이 사랑할 제 암향부동(暗香浮動)*하더라

- 안민영, 「매화사」 제2수 -

* 암향부동: 그윽한 향기가 은근히 떠돌음.

- ① ‘도요새’는 인물에게 자신감을 주고, ‘매화’는 화자에게 자존감을 상실하게 한다.
- ② ‘도요새’는 인물의 욕망을 대리 표현하고, ‘매화’는 화자가 극복해야 할 존재를 의미한다.
- ③ ‘도요새’는 인물에 종속된 존재를 표상하고, ‘매화’는 화자에게서 독립된 존재를 상징한다.
- ④ ‘도요새’는 작지만 인물에게 교훈을 주고, ‘매화’는 어리지만 화자에게 경이로움을 느끼게 한다.
- ⑤ ‘도요새’는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인물의 태도를 표상하고, ‘매화’는 화자가 추구하는 이념을 상징한다.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행장(行裝)을 다 찢티고 석경(石徑)의 막대 디퍼
 빅천동(百川洞) 겨티 두고 만폭동(萬瀑洞) 드러가니
 은(銀) ㄱ튼 무지계 옥(玉) ㄱ튼 룡(龍)의 초리
 섯들며 썸는 소리 십리(十里)의 즈자시니 [A]
 들을 제는 우레러니 보니는 눈이로다
 금강티(金剛臺) 띠 우 층(層)의 선학(仙鶴)이 샷기 치니
 춘풍(春風) 옥덕성(玉笛聲)의 첫 즈을 씨뎡던디 [B]
 호의현상(縞衣玄裳)이 반공(半空)의 소소 쓰니
 서호(西湖) 넷 주인(主人)*을 반겨셔 넘노는 듯
 쇼향노(小香爐) 대향노(大香爐) 눈 아래 구버보고
 정양스(正陽寺) 진혈티(眞歇臺) 고터 올라 안즌마리
 녀산(廬山) 진면목(眞面目)이 여기야 다 뵈는다
 어와 조화옹(造化翁)이 현스토 현스홀샤
 늘거든 쉼디 마나 섯거든 솟디 마나 [C]
 부용(芙蓉)을 고갓는 듯 백옥(白玉)을 못것는 듯
 동명(東溟)을 박츠는 듯 북극(北極)을 괴왓는 듯
 ㉠ 놉홀시고 망고티(望高臺) 외로올샤 혈망봉(穴望峰)이
하늘의 추미러 므스 일을 스로리라
천만(千萬) 겁(劫) 디나드록 구필 줄 모르는다
 어와 너여이고 너 ㄱ튼니 썸 잇는가
 기심티(開心臺) 고터 올라 등향성(衆香城) 바라보며
 만이천(萬二千) 봉(峰)을 녀녀(歷歷)히 혀여흐니 [D]
 봉(峰)마다 밧쳐 잇고 굿마다 서린 기운
 몹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몹디 마나
 더 기운 흐터내야 인걸(人傑)을 뵈들고자

- 정철, '관동별곡(關東別曲)' -

* 서호 넷 주인 : 매화를 아내로 삼고 학을 자식으로 삼아 풍류를 즐겼다고 알려진 송나라의 임포를 가리킴.

43.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간편한 차림으로 산에 올라 자연의 정경을 접했다.
- ② 화자는 '금강티'에 올라 '쇼향노'와 '대향노'를 굽어보며 흥취에 젖었다.
- ③ 화자는 학이 자신을 반긴다고 여기며 자연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냈다.
- ④ 화자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에 조물주의 숨씨가 뛰어나다며 감탄했다.
- ⑤ 화자는 '진혈티'에 올랐다가 다시 '기심티'에 올라 산봉우리들을 바라보았다.

44. <보기>의 입장에서 [A] ~ [D]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진경산수(眞景山水)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 김창흡은 진경(眞景)을 그릴 때 '신정(神情)'을 얻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했다. 신정은 외물(자연)과 만날 때 일어나는 신령스러운 마음의 작용을 의미하는데, 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대상의 본질적 특성을 보여줄 만한 것을 살리고 외적인 형상에 대한 세세한 묘사는 생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말을 그린다면 말의 형과 색을 상세히 묘사하는 것보다 말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포착하여 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관동별곡은 이와 같이 신정이 드러나는 묘사로 이루어져 있다. 신정이 드러나는 묘사는 압축과 생략을 동반하기 때문에 마치 띄엄띄엄 점을 찍는 것과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독자들은 이러한 점들을 상상을 통해 연결함으로써 머릿속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게 되고, 화자의 감흥을 생생하게 느끼게 된다.

- ① [A]에서 화자가 폭포를 대했을 때 '룽', '눈' 등을 떠올렸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화자가 폭포를 대했을 때 얻은 '신정'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 ② [B]에서는 '춘풍(春風) 옥덕성(玉笛聲)'과 학의 비상을 연결해 학을 대한 화자의 '신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학의 비상은 화자의 고양된 감흥을 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③ [D]의 '뭉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뭉디 마나'는 화자가 느낀 봉우리의 본질적 특성을 제시한 것으로 봉우리를 대했을 때 얻은 화자의 '신정'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어.
- ④ [A], [C]에서는 각각 폭포와 산봉우리의 모습을 비유를 통해 점을 찍듯 제시하고 있는데, 독자가 그렇게 제시된 것들을 연결해 상상하면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어.
- ⑤ [B], [D]에서는 공통적으로 색채 이미지를 활용해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나타냄으로써 화자의 감흥을 선명하게 부각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어.

45.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는 자연 속에서 자적하며 생활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군.
- ② 화자는 자연의 모습에서 혼탁한 속세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군.
- ③ 화자는 자연물의 모습으로부터 자신이 지키며 살아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떠올리고 있군.
- ④ 화자는 자연물의 조화로운 모습에서 백성과 어울려 선정을 베푸는 임금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군.
- ⑤ 화자는 속세에서 자신이 맡은 직분을 잊은 채 자연에 몰입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비로봉 상상두(上上頭)의 올라 보니 괴 뉘신고
 동산(東山) 태산(泰山)이 어느야 놉뎡던고
 ㉠ 노국(魯國) 조분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넓거나 넓은 천하 엇씨호야 적닷 말고
 ㉡ 어와 더 디위를 어이호면 알 거이고
 오르디 못호거니 느려가미 고이홀가
 원통골 2는 길로 사자봉을 츠자가니
 그 알피 너러바회 화룡(化龍)쇠 되여세라
 천 년 노룡(老龍)이 구비구비 서려 이서
 주야의 흘너내여 창해(滄海)에 니어시니
 ㉢ 풍운(風雲)을 언제 어더 삼일우(三日雨)를 디련는다
 음애(陰崖)에 이온 풀을 다 살와 내여스라
 ㉣ 마하연(摩訶衍) 묘길상(妙吉祥) 안문(雁門)재 너머 디여
 [A] 외나모 뼈근 드리 불정대(佛頂臺) 올라호니
 천심(千尋) 절벽을 반공(半空)에 세여 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춘춘이 버혀 내여
 실2티 플터이서 뵈2티 거러시니
 도경(圖經) 열두 구비 내 보매는 여러히라
 이적선(李謫仙)이 이제 이서 고터 의논호게 되면
 여산(廬山)이 여기도곤 낫단 말 못호려니
 산중을 밧양 보라 동해로 가자스라
 ㉤ 남여(籃輿) 완보(緩步)호야 산영루(山映樓)의 올라호니
 영룡벽계(玲瓏碧溪)와 수성제조(數聲啼鳥)는 이별을 윈(怨)호는 듯
 - 정철, 「관동별곡」 -

(나)

얼마 후 검은 안개가 몰려오더니 서쪽에서 동쪽으로 산등성이를 휘감았다. 나는 괴이하게 여겼지만, 이곳에까지 와서 한라산의 진면목을 보지 못한다면 이는 바로 산을 쌓는 데 아홉길의 흙을 쌓고도 한 삼태기의 흙을 엇지 못해 완성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 섬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을 굳게 먹고 곧장 수백 보를 전진해 북쪽 가의 오목한 곳에 당도하여 굽어보니, 상봉이 여기에 이르러 갑자기 가운데가 터져 구덩이를 이루었는데 이것이 바로 백록담이었다. 주위가 1리 남짓하고 수면이 담담한데 반은 물이고 반은 얼음이었다. 홍수나 가뭄에도 물이 줄거나 불지 않는데, 얇은 곳은 무릎에, 깊은 곳은 허리에 찼으며 맑고 깨끗하여 조금의 먼지 기운도 없으니 은연히 신선이 사는 듯하였다. 사방을 둘러싼 봉우리들도 높고 낮음이 모두 균등하니 참으로 천부의 성곽이었다.

석벽에 매달려 백록담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털썩 주저앉아 잠깐 휴식을 취했다. 일행은 모두 지쳐서 남은 힘이 없었지만 서쪽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최고봉이었으므로 조심스럽게 조금씩 올라갔다. 그러나 따라오는 자는 겨우 세 명뿐이었다.

최고봉은 평평하게 퍼지고 넓어서 그리 아찔해 보이지는 않았으나, 위로는 별자리에 닿을 듯하고 아래로는 세상을 굽어보며, 좌로는 부상(扶桑)*을 돌아보고 우로는 서쪽으로는 내륙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리고 웅기중기 널려 있는 섬들이 큰 것은 구름 조각 같고 작은 것은 달걀 같아 놀랍고 괴이한 것들이 천태만상이었다.

[B] 『맹자』의 “바다를 본 자에게는 다른 물이 물로 보이지 않으며 태산에 오르면 천하가 작게 보인다.”라는 말에 담긴 성현의 역량을 이로써 가히 상상할 수 있다. 또 소동파에게 당시에 이 산을 먼저 보게 하였다면 그의 이른바, “허공에 떠 바람을 다스리고 신선이 되어 하늘에 오른다.”라는 시구가 적벽에서만 알맞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어서 “낭랑하게 읊조리며 축융봉을 내려온다.”라는 주자의 시구를 읊으며 백록담 가로 되돌아오니, 하인들이 이미 정성스럽게 밥을 지어 놓았다.

- 최익현, 「유한라산기」 -

* 부상: 해가 뜨는 동쪽 바다.

31.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여행에 대한 경륜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 정치적 포부를 펼칠 만큼 높은 지위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 자신에게 험난한 역경이 다가오고 있음을 자연현상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④ ㉣: 거쳐 온 곳을 열거하면서 행위를 나타내는 서술어를 최소화하여 여정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 이동하는 모습을 과장되게 묘사하여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다.

32.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정을 계속하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② 객관적인 사실에 자신의 소감을 추가하여 백록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일행 중 낙오한 이들이 있었음을 밝혀 등정 과정이 힘들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최고봉에서 백록담으로 내려오는 과정을 등정 과정에 비해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 ⑤ 시구를 낭송하는 모습을 통해 등정 과정에서 있었던 일행들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33. <보기>는 (가) 작품의 다른 부분이다. <보기>와 [A],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천근(天根)을 못내 보와 망양정(望洋亭)의 올은말이
바다 맞근 하늘이니 하늘 맞근 므서신고
꺾득 노흔 고래 뉘라셔 놀내관디
블거니 썸거니 어즈러이 구는디고
은산(銀山)을 것거 내여 육합(六合)의 느리는 듯
오월(五月) 장천(長天)의 백설(白雪)은 므스 일고

- ① [A]와 <보기>는 모두 자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② [A]는 지상의 자연물을 천문 현상에 비유하고, <보기>는 천문 현상을 지상의 자연물에 비유하고 있다.
- ③ [B]와 <보기>는 모두 인간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자연의 냉혹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B]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제시하고, <보기>는 자연물의 움직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A]와 [B]에서는 자연의 모습을 관조하고 있고, <보기>에서는 자연을 통해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34. <보기>를 참조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선비들의 산수 유람에는 와유(臥遊)와 원유(遠遊)가 있다. 와유는 일상에서 산수화나 산수 유람의 글 등을 감상하며 국내외의 여러 경치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즐기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원유는 이름난 경치를 직접 찾아가 실제의 자연을 즐기는 흔치 않은 체험으로, 유교에서 강조하는 호연지기를 기르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 ① (가)의 화자가 '화룡소'를 보고 감상한 부분은 다른 이들이 같은 장소를 와유할 때 활용될 수 있겠군.
- ② (가)의 화자는 와유를 통해 상상하던 '여산'의 모습과 원유를 통해 실제로 바라본 '여산'의 모습을 비교하며 와유의 가치를 확인하고 있군.
- ③ (나)의 글쓴이는 원유를 통해 '백록담'에서 실감한 자연의 형세를 묘사하고 있군.
- ④ (나)의 글쓴이가 정상에 올라 '성현'의 호연지기를 상상하는 데서 원유가 호연지기를 기르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나)의 글쓴이는 '소동파'의 시를 통해 와유했던 적벽의 모습과 원유를 통해 확인한 한라산의 모습을 비교하여 한라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군.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산은 첩첩하고 물은 중중한데, 잠자려는 새들은 숲으로 들어가 객회(客懷)를 자아내니 숙향이 갈 데 없어서 앉아서 울고 있었다. 문득 파랑새가 꽃봉오리를 물고 손등에 앉거늘 숙향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꽃봉오리를 먹으니 눈이 맑아지고 배가 불러 정신이 상쾌하며 몸에 향내 진동하더라.

일어나서 ㉡ 파랑새가 가는 대로 따라 두어 고개를 넘어가니 산골짜기에 한 궁궐이 있는데, 그 새가 큰 문으로 들어가거늘 숙향이 따라 들어갔다. 한 계집이 마중 나와 숙향을 안고 들어가 큰 전각(殿閣) 앞에 놓으니 한 부인이 머리에 화관(花冠)을 쓰고 황금 의자에 앉아 있다가 숙향을 맞아 팔을 밀어 동편 백옥 의자에 앉기를 청하거늘 숙향이 어찌할 줄 모르고 다만 울 뿐이었다.

부인 왈,

“선녀께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 더러운 물을 많이 먹었으니 정신이 바뀌어 전생 일을 모르나이다.”

선녀에게 명해 경액(瓊液)*을 드리라 한대 선녀가 만호잔에 호박대를 받쳐 이슬 같은 것을 부어 드리거늘 숙향이 받아먹으니 맛은 젓맛 같고 매우 향기롭더라. ㉢ 먹은 후에 천상의 일과 인간 세상에 내려와 부모 잃고 헤매며 고생한 일을 일일이 알게 되니 몸은 비록 아이나 마음은 어른이라. 즉시 일어나 부인에게 예를 표해 왈,

“첩은 천상에 득죄(得罪)하여 인간 세상에 내려와 고초가 [A] 심하거늘 이다지도 불쌍히 여겨 대접하시니 지극히 감격 하나이다.”

“선녀께서는 저를 알아보시겠나이까?”

“인간 세상에 내려와 정신이 바뀌었사오니 자세히 아옵지 못하나이다.”

“이 땅은 명사계(冥司界)요, 저는 후토 부인이니이다. 선녀께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 고생을 겪었으며 접때 잔나비와 황새를 보내 도와 드렸고 이번에는 파랑새를 보내었삽더니 보셨나이까?”

“다 보았사오니 부인의 하늘 같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사오니 부인의 시비나 되어 만분지일이나 갚아올까 바라나이다.”

부인이 정색하고 왈,

“저는 한낱 조그마한 신령이요, 그대는 월궁의 으뜸 선녀라. 비록 천상에서 지은 죄로 인간 세상에 내려와 일시 [B] 고생을 겪었으나 그런 말씀을 어찌 하시나이까? 선녀가 실 곳이 또한 머오니 그 사이에 고생을 많이 겪을 것이 오매 쉬어 내일 가소서.”

하고, 잔치를 배설하여 환대하니 음식과 보배 등이 극히 화려하더라.

숙향이 부인에게 왈,

“첩이 전일 듣사오니 명사계는 시왕(十王)이 계신 데라 하더니 그러하오이까?”

“그러하여이다.”

“그러하오면 시왕전이 어디오이까?”

“멀지 아니하오이다.”

[37 ~ 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홍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내 생애(生涯) 엇더흔고.

넷 사름 풍류(風流)를 미출가 못 미출가.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날 만흔 이 하건마는,
산림(山林)에 못쳐 이서 지락(至樂)을 맛들 것가.

수간 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앞피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 주인(風月主人) 되여셔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 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휘여 잇고,

녹양 방초(綠楊芳草)는 세우 중(細雨中)에 프르도다.

㉠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화 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스롭다.

㉡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계워 소리마다 교태(嬌態)로다.

물아 일체(物我一體)어니 흥(興)이익 다를소냐.

시비(柴扉)에 거러 보고 정자(亭子)에 안자 보니,

소요 음영(逍遙吟詠)하야 산일(山日)이 적적(寂寂)흔디,

한중 진미(閑中眞味)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이바 니웃드라, 산수(山水) 구경 가자스라.

답청(踏青)으란 오늘 헝고 욱기(浴沂)란 내일(來日) 헝새.

아츠·口에 채산(採山)헝고 나조히 조수(釣水)헝새.

꺾 꺾여 닉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밧타 노코,

곶나모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

화풍(和風)이 건듯 부러 녹수(綠水)를 건너오니,

㉢ 청향(清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새 진다.

준중(樽中)이 뷘엇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소동(小童) 아히드려 주가(酒家)에 술을 물어,

얼운은 막대 집고 아히는 술을 메고,

미음 완보(微吟緩步)하야 시냇ㄱ의 호자 안자,

명사(明沙)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청류(清流)를 굽어보니 썬오느니 도화(桃花) | 로다.

무릉(武陵)이 갓갑도다, 저 밍이 권 거인고.

송간 세로(松間細路)에 두견화(杜鵑花)를 부치 들고,

봉두(峰頭)에 급피 올라 구름 소기 안자 보니,

㉣ 천촌 만락(千村萬落)이 곳곳이 버러 잇넉.

연하 일휘(煙霞日輝)는 금수(錦繡)를 재펴는 듯.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有餘)홀샤.

공명(功名)도 날 썬우고 부귀(富貴)도 날 썬우니,

청풍 명월(淸風明月) 외(外)에 엇던 벗이 잇스올고.

㉤ 단표 누항(簞瓢陋巷)에 훗튼 혜음 아니 헝넉.

아모타, 백년 행락(百年行樂)이 이만흔들 엇지헝리.

37. [A] ~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생애’에 대한 자부심을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B]에서는 ‘수간 모옥’ 주변의 경치를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부각하고 있다.
- ③ [C]에서는 ‘호재로다’에 담긴 고독한 정서를 대조의 방법으로 강조하고 있다.
- ④ [D]에서는 ‘니웃’들과 풍류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대구의 방법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E]에서는 ‘술’로 인한 취흥을 고사(故事)를 이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38.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칼로 마름질하거나 붓으로 그려낸 것 같다는 뜻으로 봄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 ② ㉡: 새 소리가 흥겹게 들린다는 뜻으로 화자의 흥취를 자연물에 투영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③ ㉢: 향기는 잔에 어리고 꽃잎은 옷에 떨어진다는 뜻으로 물아일체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 ④ ㉣: 아름다운 마을이 곳곳에 펼쳐 있다는 뜻으로 이상향이 실현된 공간을 그리고 있다.
- ⑤ ㉤: 소박하게 살며 헛된 생각은 안 하겠다는 뜻으로 삶에 대한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39.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조선 전기 사대부들에게 자연은 관조를 통해 지극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정극인 역시 자연과 소통하며 삶의 충만함을 느끼고자 했다. 즉 일상적 현실에서 벗어나 은일하며 자연과의 조화와 합일을 추구한 것이다. <상춘곡>은 그의 이러한 세계관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 ① 인간적 욕망에 시달리면서도 자연 속에서 이러한 욕망을 극복하고 있군.
- ② 학문의 정진을 통해 자연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치를 깨닫고 있군.
- ③ 자연을 즐거움을 얻는 공간으로 묘사하며 심리적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군.
- ④ 자연과의 합일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안타까움에서 벗어나고 있군.
- ⑤ 자연에 대한 관조를 통하여 화자의 잘못을 성찰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군.

35. '어머니'와 관련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사건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 반응을 행동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 ② ㉡: '어머니'가 처한 현실과 상반된 지명이 현실의 모순을 부각하고 있다.
- ③ ㉢: '어머니'에게 닥친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드러내고 있다.
- ④ ㉣: 생활의 의지마저 포기한 '어머니'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⑤ ㉤: '어머니'의 고조된 음성이 상황의 절박함을 암시하고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은 등장인물인 '지섭'을 통해 '죽은 땅'과 '달나라'라는 상징적 공간을 설정하여 '난장이' 일가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죽은 땅'은 '욕망'과 '불공평'이라는 속성으로, '달나라'는 '사랑'과 '남을 위한 눈물'이라는 속성으로 구체화된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은 산업 사회의 이면에 대한 비판과 이상 세계를 향한 낭만적 동경을 보여 주고 있다.

- ① '불공평'을 '죽은 땅'의 속성으로 볼 때, '공고문'은 불평등한 현실의 문제를 들춰내는 소재이겠군.
- ② '욕망'을 '죽은 땅'의 속성으로 볼 때, '난장이' 가족의 어려움은 '욕망'으로 가득한 현실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달나라'가 '죽은 땅'과 대조되는 것으로 볼 때, '달나라'에 대한 동경은 '죽은 땅'에 대한 '지섭'의 비판적 인식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사랑'을 '달나라'의 속성으로 볼 때, '지섭'은 자신의 욕망만 앞세우는 사람들이 사는 '죽은 땅'에서는 '사랑'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겠군.
- ⑤ '남을 위한 눈물'을 '달나라'의 속성으로 볼 때, '지섭'은 '난장이'가 주어진 현실의 삶에 충실하지 못했기에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려 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겠군.

37. ㉠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구무언(有口無言) ② 일구이언(一口二言)
- ③ 중구난방(衆口難防) ④ 진퇴양난(進退兩難)
- ⑤ 횡설수설(橫說豎說)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천만리(千萬里) 머나먼 길에 고운 님 여의웁고
내 마음 들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울어 밤길 가는구나
- 왕방연 -

(나) 청초(靑草) 우거진 골에 자느냐 누웠느냐
홍안(紅顔)*을 어디 두고 백골(白骨)만 묻혔느냐
잔(盞) 잡아 권(勸)할 이 없으니 그를 슬퍼 하노라
- 임제 -

(다) 흥망(興亡)이 유수(有數)하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로다
오백 년(五百年) 왕업(王業)이 목적(牧笛)*에 부쳤으니
석양(夕陽)에 지나는 객(客)이 눈물겨워 하노라
- 원천석 -

- * 홍안: 젊어서 혈색이 좋은 얼굴.
- * 만월대: 고려의 왕궁 터.
- * 목적: 목동의 피리.

38.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부재에서 느끼는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 ② 자신의 궁핍한 처지로 인한 좌절감이 표출되어 있다.
- ③ 예기치 않은 이별로 인한 서러운 심정이 나타나 있다.
- ④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감이 드러나 있다.
- ⑤ 자신의 이념과 배치되는 현실에서 느끼는 실망감이 표출되어 있다.

39. (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천만리(千萬里) 머나먼 길에 고운 님 여의웁고'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님'과 이별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② (가)의 '저 물도 내 안 같아서'는 인간과 자연물의 동일시를 통해 화자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 ③ (가)의 '밤길 가는구나'는 캄캄한 '밤'의 속성을 통해 화자의 암담한 심경을 표현하고 있다.
- ④ (나)의 '홍안(紅顔)을 어디 두고 백골(白骨)만 묻혔느냐'는 시어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의 '잔(盞) 잡아 권(勸)할 이 없으니'는 각박한 세태의 제시를 통해 속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40. (다)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홍진(紅塵)에 묻힌 분네 이 내 생애(生涯)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風流)에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나만한 이 많건마는
 산림(山林)에 묻혀 있어 지락(至樂)을 모를 것인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앞에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었어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夕陽) 속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가랑비 속에 푸르도다
 칼로 마름질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야단스럽다
 - 정극인, 「상춘곡」 -

- ① (다)와 <보기>는 동일한 음보율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군.
- ② (다)는 <보기>와 달리 이질적 공간을 대비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군.
- ③ (다)에서는 침울한 분위기를, <보기>에서는 들뜬 분위기를 느낄 수 있군.
- ④ (다)의 ‘석양’은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는 배경으로, <보기>의 ‘석양’은 경치를 돋보이게 하는 배경으로 기능하고 있군.
- ⑤ (다)는 화자가 혼잣말을 하는 방식으로, <보기>는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군.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흥 판서와 시비 춘삼 사이에서 서자로 태어난 길동은 자신의 처지를 괴로워하다가 부친께 호부호형을 허락받고, 집을 나와 활빈당 활동을 벌여 조정과 대립하다가 병조판서 벼슬을 받는다.

음력 구월 보름에 임금이 달빛을 받으며 후원을 걸으실새, 문득 맑은 바람이 일어나며 공중에서 피리 소리가 청아한 가운데 한 소년이 내려와 주상 앞에 엎드렸다. 임금이 놀라 묻기를, “선동(仙童)이 어찌 인간 세상에 내려왔으며 무슨 일을 말하고자 하나뇨?”

소년이 땅에 엎드려 아뢰기를,
 “신은 전임 병조판서 흥길동이옵니다.”

상이 놀라 또 묻기를,
 “네가 어찌 심야에 왔느냐?”

길동이 대답해 가로되,
 “신이 전하를 받들어 만세를 모실까 했으나,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났기에 문(文)으로는 흥문관 벼슬이 막히고 무(武)로는 선전관 벼슬길이 막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활빈당으로 더불어 사방을 멋대로 떠돌아다니며 관청에 폐를 끼치고 조

정에 죄를 지었던 것이온데, 이는 전하로 하여금 아시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이제 벼슬을 내리어 신의 소원을 풀어 주셨으니 전하를 하직하고 조선을 떠나가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만수무강하소서.”

하더니 공중에 올라 아득히 날아가거늘, 임금이 그 재주를 못내 칭찬하였다. 그 후로는 길동의 폐단이 없으니 사방이 태평하였다.

길동이 조선을 하직하고 남경 땅 제도라는 섬으로 들어가, 수천 호의 집을 짓고 농업에 힘쓰고 무기 창고를 지으며 군법을 연습하니, 병사는 잘 훈련되고 양식은 풍족하게 되었다.

(중략)

상주 인형이 자세히 보니, 곧 길동이라 붙잡고 통곡하며,
 “아우야, 그 사이 어디 갔더냐? 아버지께서 평소에 유언이 간절하셨는데, 이제 오니 어찌 자식의 도리이겠느냐?” 하며, 손을 이끌고 내당에 들어가 모부인(母夫人)을 뵈우고 춘삼을 상면하여 한바탕 통곡하였다.

“네가 어찌 중이 되어 다니느냐?”

하니, 길동이 대답했다.

“소자가 조선을 떠나 머리 깎고 중이 되어 지술(地術)을 배웠습니다. 이제 부친을 위하여 좋은 터를 구했으니, 모친은 염려 마소서.”

인형이 크게 기뻐 말하였다.
 “너의 재주 기이한지라, 좋은 터를 얻었으면 무슨 염려가 있으리오.”

[A] 다음날 길동이 운구하여 제 모친을 모시고 서강 강변에 이르니, 지휘해 놓은 대로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 배에 올라 화살같이 빨리 저어 한 곳에 다다르니, 여러 사람이 수십 척의 배를 대어 놓고 있었다. 서로 반기며 호위하여 가니 그 광경이 대단하였다. 어언간 산 위에 다다르매, 인형이 자세히 본즉 산세가 웅장한지라, 길동의 지식을 못내 탄복하였다. 일을 마치고 함께 길동의 처소로 돌아오니, 백씨와 조씨가 시어머니와 시숙을 맞아 뵈우는 한편, 인형과 춘삼은 못내 길동의 지식을 탄복하였다.

여러 날이 되자, 인형은 길동과 춘삼을 이별하면서 산소를 극진히 모시라 당부한 후, 산소에 하직하고 출발했다. 본국에 이르러 모부인을 뵈우고 전후 사실을 고하니, 부인이 신기하게 여겼다. 길동이 제사를 극진히 받들어 삼년상을 마치매 모든 영웅을 모아 무예를 익히며 농업에 힘쓰니, 병사는 잘 조련되고 양식도 풍족했다.

남쪽에 울도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으니, 기름진 평야가 수천리나 되며 덕화(德化)가 행해지니 실로 살기 좋은 나라라, 길동이 매양 생각해 오던 바였다. 모든 사람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이제 울도국을 치고자 하니 그대들은 정성을 다하라.” 하고는 그날로 진군하였다. 길동은 스스로 선봉장이 되고 마속으로 후군장을 삼아, 정예병 오만을 거느리고 울도국 철봉산에 다다라 싸움을 걸었다. 울도국 태수 김현충이 난데없는 군사가 이름을 보고 크게 놀라 왕에게 보고하는 한편, 한 부대의 군사를 거느리고 내달아 싸웠다. 길동이 이를 맞아 싸워 한 번에 김현충을 베고 철봉을 얻어 백성을 달래어 위로하였다. 정철로